

전국 대학 영화영상 학과



입시 가이드

시너지 1336호 별책부록

정시 입시전형표

학과 및 대학별 특성과 지원 시 공략법

영화영상 분야 학과 졸업 후 진로가이드

편입 준비생을 위한 정보

주요 대학 입시가이드

2022년 전국 영화영상학과 정시 입시전형표

전국 영화영상학과 정시 입시전형표는 (EB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및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시처 안내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전형 방법은 정시 일반전형 기준이며 한 학교/학과가 수능 중심과 실기 중심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영화영상 관련 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다음 표에 나온 학과별 전형 방법을 참고하되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당부드립니다.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학교나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형 방법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경기 성남	gachon.ac.kr	수능 60% 실기 40%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강원 춘천	kangwon.ac.kr	수능 100%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경기 수원	kyonggi.ac.kr	수능 30% 실기 70%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	대구 달서	kmu.ac.kr	수능 20% 실기 80%
	광주대학교	사진영상드론학과	광주 남구	gwangju.ac.kr	수능 100%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서울 성북	kookmin.ac.kr	실기전형 1단계 학생부 11.39% 수능 88.61% 2단계 1단계 성적 54.23% 반영 기초조형평가 34.33% 사고력 평가 11.44%, 비실기전형 수능 100%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부	충남 천안	kornu.ac.kr	수능 100%
	남서울대학교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충남 천안	namseoul.net	수능 20% 실기 80%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경기 용인	dankook.ac.kr	수능전형 수능 100%(영화-이론·연출·스텝, 연극-연출), 실기전형 수능 30% 실기 70%(연극-연기, 뮤지컬-연기)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영화영상학과	서울 중구	dongguk.ac.kr	연극학부 수능 60% 실기 40%, 영화영상학과 수능 100%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와	부산 사상	dongseo.ac.kr	일반전형 수능 100%(영화과), 실기전형 수능 20% 실기 80%(영상애니메이션과, 뮤지컬과, 연기와)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뮤지컬전공	충남 천안	bu.ac.kr	수능 20% 실기 80%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전공	부산 금정	pusan.ac.kr	수능 60% 실기 40%
	상지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강원 원주	sangji.ac.kr	수능 20% 실기 80%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출전공, 모델연기전공, 무대기술전공	서울 성북	skuniv.ac.kr	연출전공 수능 60% 실기 40%, 무대기술(공연기획 및 제작)전공 수능 60% 실기 40%, 무대기술(무대, 조명)전공 1단계 실기 100% 2단계 수능 20% 실기 80%, 모델연기전공 1단계 실기 100% 2단계 수능 20% 실기 80%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경기 안양	sungkyul.ac.kr	수능 30% 실기 70%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서울 종로	skku.edu	수능 100%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서울 성북	sungshin.ac.kr	수능 30% 실기 70%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	서울 광진	sejong.ac.kr	수능 30% 실기 60% 학생부 10%
	여원예술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전북 임실	yewon.ac.kr	수능 20% 실기 60% 면접 20%
	제주국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제주 제주	jeju.ac.kr	수능 86% 학생부 14%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광주 동구	chosun.ac.kr	수능 40% 실기 60%
	중부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사진영상전공, 공연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전공	충남 금산	joongbu.ac.kr	수능중심 수능 100%(사진영상전공), 실기중심 수능 30% 실기 70%(만화애니메이션전공, 연극영화전공) 학생부 12.9% 실기 87.1%
	청운대학교	연극예술학과, 뮤지컬학과	충남 홍성	chungwoon.ac.kr	수능 30% 실기 70%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충북 청주	cju.ac.kr	수능 20% 실기 80%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경기 군포	hansei.ac.kr	수능 100%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	서울 성동	hanyang.ac.kr	수능전형 수능 100%(문화영상학부), 실기전형 수능 10% 실기 90%(공연예술학부) 수능 20% 실기 80%(애니메이션학과, 문화영상학부)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문화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충남 아산	hoseo.ac.kr	수능 21.1% 면접 78.9%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뮤지컬전공	전북 군산	howon.ac.kr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60% 서류 40%
	홍익대학교(세종)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세종 조치원	sejong.hongik.ac.kr	

나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형 방법
	가톨릭관동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강원 강릉	cku.ac.kr	수능 10% 실기 90%
	강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강원 삼척	kangwon.ac.kr	수능 40% 실기 60%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서울 광진	konkuk.ac.kr	수능 60% 실기 40%
	경기대학교	연기학과	서울 서대문	kyonggi.ac.kr	1단계 실기 100% 2단계 수능 30% 실기 70%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부산 남구	kscms.ks.ac.kr	실기특별전형 수능 30% 실기 70%(연극영화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일반전형 수능 100%(영상애니메이션학부) 일반전형 수능 100%, 실기전형 수능 30% 실기 70%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경북 경산	kiu.ac.kr	수능 100%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경기 용인	ft.khu.ac.kr	수능 100%
	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영상학과	충남 공주	kongju.ac.kr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수능 58.4% 실기 41.6%, 영상학과 수능 100%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서울 성북	kookmin.ac.kr	학생부 11.39% 수능 88.61%(수시모집 미충원 이월 인원 모집)
	국동대학교	미디어영상제작학과	충북 음성	kdu.ac.kr	수능 100%(수시모집 미충원 이월 인원 모집)
	대구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경북 경산	daegu.ac.kr	수능 20% 실기 80%
	대구예술대학교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경북 칠곡	dgau.ac.kr	실기 70% 수능 30%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서울 성북	dongduk.ac.kr	수능 30% 실기 70%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부산 부산진구	deu.ac.kr	수능 100%
	명지대학교	예술학부 영화전공	경기 용인	mju.ac.kr	수능 60% 실기 40%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부, 웹툰애니메이션·게임학부	대전 서구	mokwon.ac.kr	연극영화영상학부 수능 18% 실기 82%, 웹툰애니메이션·게임학부 실기 100%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충남 천안	bu.ac.kr	수능 20% 실기 80%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부산 금정	pusan.ac.kr	수능 60% 실기 40%
	상명대학교	예술학부	충남 천안	smu.ac.kr	수능전형 수능 100%(영화영상전공-연출·스텝, 연극전공-이론), 수능실기전형 수능 52% 실기 48% (영화영상전공-연기, 연극전공-연기, 무대미술전공, 디지털만화영상전공)
	수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연극, 문화콘텐츠테크놀로지	경기 화성	suwon.ac.kr	연극 수능 30% 실기 70%, 문화콘텐츠테크놀로지 수능 100%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충북 제천	semyung.ac.kr	수능 20% 실기 80%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전공	서울 광진	sejong.ac.kr	수능 30% 실기 60% 학생부 10%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서울 동작	ssu.ac.kr	수능 30% 실기 70%
	신한대학교	공연예술전공	경기 의정부	shinhan.ac.kr	수능 20% 실기 80%
	여원예술대학교	공연예술전공,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전북 임실	yewon.ac.kr	공연예술전공 수능 30% 실기 50% 면접 20%, 애니메이션&웹툰전공 학생부 20% 실기 80%
	영인대학교	연극학과, 영화영상학과	경기 용인	yongin.ac.kr	연극학과 1단계 수능 100% 2단계 학생부 11.6% 수능 55.2% 실기 33.2%, 영화영상학과 학생부 10.7% 수능 89.3%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광주 동구	chosun.ac.kr	수능 40% 실기 60%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서울 동작	cau.ac.kr	수능-일반전형 수능 100%(영화전공), 수능-실기전형 수능 55% 실기 45%(공간연출전공), 실기/실적-실기전형 수능 30% 실기 70%(연극 연출/기획 전공)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충북 괴산	jwu.ac.kr	학생부 20% 실기 80%
	청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충북 청주	cju.ac.kr	수능 30% 실기 70%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대전 대덕	hannam.ac.kr	수능 100%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연극연출, 연기전공	서울 성동	hanyang.ac.kr	1단계 수능 100% 2단계 실기 100%

다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형 방법
	건국대학교(글로벌)	미디어콘텐츠학과	충북 충주	kku.ac.kr	수능 40% 실기 60%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서울 서대문	kyonggi.ac.kr	수능 100%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경북 경산	kiu.ac.kr	수능 20% 실기 80%
	국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연기학과	충북 음성	kdu.ac.kr	수능 20% 실기 80%
	대전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대전 동구	dju.ac.kr	학생부 20% 실기 80%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경기 포천	daejin.ac.kr	수능 30% 실기 70%
	명지대학교	예술학부 뮤지컬공연전공	경기 용인	mju.ac.kr	수능 20% 실기 80%
	상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강원 원주	sangji.ac.kr	수능 100%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	서울 성북	skuniv.ac.kr	영화영상학과 수능 40% 실기 60%,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 1단계 실기 100% 2단계 수능 20% 실기 80%
	수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경기 화성	suwon.ac.kr	수능 40% 실기 60%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충남 아산	sch.ac.kr	공연영상학과 수능 20% 실기 80%,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수능 40% 실기 60%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경기 안양	anyang.ac.kr	수능 10% 실기 90%
	영산대학교	방송사진예술학과, 연기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부산 해운대	ysu.ac.kr	일반전형 학생부 30% 실기 70%(방송사진예술학과, 디자인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실기전형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 (연기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인천 연수	inu.ac.kr	수능 30% 실기 70%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전북 전주	jj.ac.kr	수능 100%
	평택대학교	공연영상콘텐츠학과	경기 평택	ptu.ac.kr	실기 100%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과	강원 원주	halla.ac.kr	수능 100%
	한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충남 서산	hanseo.ac.kr	수능 20% 실기 80%

2·3년제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형 방법
	경민대학교	영상콘텐츠과, 공연예술과	경기 의정부	kyungmin.ac.kr	수능 60% 학생부 40%
	경기대학교	공연예술과	경기 남양주	kbu.ac.kr	학생부 20% 실기 80%
	계명문화대학교	공연음악학부 뮤지컬전공, 영상웹툰애니메이션학부	대구 달서	kmcu.ac.kr	학생부전형 학생부 80% 면접 20%(영상웹툰애니메이션학부) 학생부 40% 실기 60%(공연음악학부 뮤지컬전공), 수능전형 수능 80% 면접 20%(영상웹툰애니메이션학부) 수능 40% 실기 60%(공연음악학부 뮤지컬전공)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	경기 의왕	kaywon.ac.kr	수능위주 수능 100%, 실기위주 실기 100%
	국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경기 평택	kookje.ac.kr	실기 100%
	군장대학교	뮤지컬방송연기계열	전북 군산	gunjang.ac.kr	실기 100%
	대경대학교	K-연극영화뮤지컬과, 연극영화과	경북 경산	tk.ac.kr	일반전형 학생부 30% 실기 70%, 대학자체전형 면접·실기 100%
	동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경기 성남	du.ac.kr	학생부 40% 실기 60%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경기 안성	dima.ac.kr	영상제작과 수능 60% 실기 40%, 공연예술계열 수능 10% 실기 90%, 영화예술과 수능 10% 실기 90%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상학과	서울 서대문	mjc.ac.kr	학생부 20% 실기 80%
	백석문화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충남 천안	bcsu.ac.kr	학생부 40% 실기 60%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전북 완주	paekche.ac.kr	학생부 20% 실기 80%
	부산경상대학교	첨단미디어·연기예술과 연기예술전공	부산 연제	bsks.ac.kr	면접전형 서류 40% 면접 60%, 실기전형 실기 100%
	부산예술대학교	연극영상연기와	부산 남구	busanarts.ac.kr	실기 100%
	상지영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강원 원주	sy.ac.kr	수능 100%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연극전공, 연기전공, 영상학부 영화전공	경기 안산	seoularts.ac.kr	연극전공 실기 100%, 연기전공 학생부 40% 실기 60%, 영화전공 학생부 20% 실기 80%
	서일대학교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서울 중랑	hm.seoil.ac.kr	학생부 40% 실기 60%
	수원과학대학교	연기영상과	경기 화성	ssc.ac.kr	수능 20% 실기 80%
	수원여자대학교	연기영상과	경기 수원	swc.ac.kr	수능 20% 실기 80%
	영진전문대학교	영상제작과	서울 중구	sew.ac.kr	수능 60% 학생부 40%
	영진전문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대구 북구	yju.ac.kr	학생부 100%
	웅진예술과학대학교	방송영화제작과, 연기예술과	경기 용인	ysc.ac.kr	수능전형 수능 100%(방송영화제작과), 실기전형 학생부 20% 실기 80%(연기예술과)
	유한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학과	경기 부천	yuhan.ac.kr	수능전형 수능 100%, 학생부전형 학생부 100%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연기전공, 뮤지컬전공	서울 노원	induk.ac.kr	학생부 20% 실기 80%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상미디어학부	서울 중구	jb.ac.kr	공연예술학부 실기 100%, 영상미디어학부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100%, 수능 중심 전형 수능 100%
	조선이공대학교	시각애니메이션콘텐츠과	광주 동구	cst.ac.kr	학생부 100% 면접 P/F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스쿨, 공연예술스쿨	경기 이천	ck.ac.kr	수능전형 수능 40% 실기 60%(애니메이션스쿨), 실기전형 실기 100%(공연예술스쿨, 애니메이션스쿨)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과	세종 장군	pro.ac.kr	학생부 100%
	한림성신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과	강원 춘천	hsc.ac.kr	수능 20% 학생부 80%
	한양여자대학교	영상콘텐츠과	서울 성동	hywoman.ac.kr	학생부 40% 실기 60%
	호산대학교	공연예술과	경북 경산	hosan.ac.kr	면접 100%

사이버대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형 방법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서울 동대문	khcu.ac.kr	자기소개서 80% 인성검사 20%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서울 서대문	scau.ac.kr	학업계획서 30% 학업소양평가 70%
	서울사이버대학교	회화공예전공, 웹툰매체학과	서울 강남	iscu.ac.kr	학업계획서 70% 적성평가 30%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서울 광진	home.sjcu.ac.kr	나의 학업플랜 70% 적성검사 30%
	화신사이버대학교	영상콘텐츠학과	부산 연제	hscu.ac.kr	학생부 100%

확점은행제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형 방법
	건국대학교미래직식교육원	영상영화학전공	서울 광진	edulife1.konkuk.ac.kr	면접 100%
	남예중예술실용전문대학교	연기공연예술, 영화방송제작계열	서울 동대문	ntc.ac.kr	면접·실기 100%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서울 중구	ducsi.ac.kr	실기 60% 면접 40%
	서울중합예술실용학교	연기, 방송영화제작	서울 강남	sac.ac.kr	연기 실기 20% 면접 80%, 방송영화제작 면접 100%
	서울호서실용전문대학교	연기예술, 방송영화제작	서울 강서	koreaart.ac.kr	실기 100%
	한국방송이카데미학원	영화학	서울 서대문	katv.net	서류 100%
	KCA한국예술원	연기예술계열, 영화예술계열	서울 서대문	ikac.kr	연기예술계열 학생부 10% 면접 40% 실기 50%, 영화예술계열 학생부 10% 면접 50% 실기 40%

미디어 지형의 격변에 발맞추는

영화영상학과는 영화 및 영상분야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요람이다. 영화영상학과는 이론 과목과 기술 실습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배양한다. 영화 감독, 프로듀서, 사운드 디자이너 등 현업에서 활약하는 교강사진이 강의를 담당한다.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설비를 직접 다루며 자신만의 영화를 연출하는 기회도 거머쥔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영화영상학과 졸업생들은 영화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일부는 우수 영화제 출품작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남매의 여름밤>의 윤단비 감독,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의 신동민 감독이 대학에서 영화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주목받는 신인으로 도약한 경우다. 최근에는 영화영상학과들도 강의와 실습에 다변화를 꾀하며 행보를 확장하고 있다.

영화영상학과는 실무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대학은 영화계 종사자들로 교수진을 꾸려 현장 연계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건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엔 홍상수 감독이 영화 연출을 가르치고 있다.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엔 <안시성>의 김광식 감독과 <승리호>의 조성희 감독이 교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대학들은 실전과 흡사한 영화 제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놓았다. 영화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설비를 학교에서 미리 경험한다는 것은 영화영상학과만의 큰 이점이다.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기회도 얻는다. 강의실 안팎에서 다듬은 능력을 발휘해 짧은 길이의 자신만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시나리오 작성, 연기 및 촬영, 연출, 편집까지 영화 제작의 모든 일을 해낸다.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고 학우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생리를 미리 경험한다. 이렇게 탄생한 결과물을 학기 말 영화제에 상영한다. 건국대학교 'KU영상제'와 동국대학교 듀이카의 '꿈틀영화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력을 갈고닦은 학생들은 자신의 영화를 일반 관객에게 선보이기도 한다. 많은 학생들이 4년간의 노력을 집대성한 졸업작품을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하여 영화감독 입문에 도전하기도 한다.

영화영상학과에도 변화의 바람이 꾸준히 불고 있다. 격변하는 미디어 지형에 맞추어 대학들은 새로운 수업과 실습을 도모하고 있다. 모션그래픽, 시각효과(VFX), 확장현실(XR) 등 최신 기술을 영상에 접목하는 강의가 속속 열리고 있다. 플랫폼 시장 부상에 대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뉴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강의를 신설하는 영화영상학과들이 늘고 있다. 영화 제작에 중점을 두는 전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도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만들고 작업물을 뉴미디어 채널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식 숭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교수는 지난 9월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 새로 생긴 유튜브팀에서) 자체 콘텐츠도 제작하고 영화와 다른 유형의 영상들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객원기자

공연과 매체를 아우르는 배우의 길

연기학과는 연기예술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실습도 경험할 수 있는 전공이다. 연기학과에서 수많은 유명 배우들이 배출됐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연기자가 연기학과에 진학해 기량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는 원로배우 박근형에서 한류스타 김수현까지 여러 명의 연기예술가를 양성했다. 뮤지컬에서 맹활약 중인 옥주현과 스크린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한 이주영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이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의 경계를 넘나들면 활동 중인 조승우는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동문이다.

대학의 연기학과는 연기 분야를 크게 매체, 연극, 뮤지컬, 세 갈래로 나누어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마다 방향성이 다른 만큼 특정 연기를 집중해 가르치는 곳도 있고 세 분야의 커리큘럼을 아우르는 곳도 있다.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는 매체연기에 두각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곳엔 '매체연기' 강의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교내 극장인 'KU시네마테크'에서 스크린 위에 옮겨진 자신의 연기를 점검하는 기회도 가진다.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전통에 충실한 연극무대연기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무대연기의 기본기인 '발성'과 '화술'을 시작으로 '연극연출'과 '공연창작'까지 체계적인 교습 단계를 갖추었다.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연기, 뮤지컬, 공연기획 제작으로 세부 전공이 나뉜다. 학부생들은 전공 수업을 교차 수강하거나 다른 전공 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연기학과와 교육목표 중 하나는 학생의 작품 해석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절륜한 연기는 신체 표현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좋은 표현의 길은 배우가 스스로 배역을 연구할 때 열린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작품과 캐릭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연기학과는 '연극사', '영화사', '비평'과 같은 강의를 두어 학생들에게 이론교육을 진행한다. 체계적인 작품 분석과 상상력 훈련으로 학생의 표현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업으로 다져진 기본기는 추후 창의적으로 캐릭터를 재해석하는 연기예술의 밑거름이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자신의 페르소나인 키키 기린을 언급하며 "(연출에 대해) 주고받는 과정이 가능한 배우가 현장에 있다는 것은 연출자로서 큰 혜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기학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미디어 시장 변동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뉴미디어엔터테이너' 과목을 신설하고 뉴미디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예술계가 움츠러들자 비대면 공연으로 인한 활로 개척도 잇따르고 있다.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재학생들의 연극 무대를 2020년부터 학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가천대학교 연기에술학과는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연극 공연을 진행했다. 해당 스트리밍 공연은 실감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과 공연예술의 만남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태호 객원기자

영상산업의 기반이 된 웹 기반 콘텐츠 전공의 부상

2021년은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K콘텐츠의 저력을 선보인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스위트 홈> <D.P.> <지옥> 등을 포함한 최근 몇년간 등장했던 우수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웹툰'을 원작으로 뒀다는 점이다.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한국의 만화 문화인 웹툰이 명실상부 영상콘텐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를 위한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학들은 웹툰과 연관된 학과를 신설하고 이외에 다양한 학과를 신설하여 문화콘텐츠의 저변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학교 중 하나다. 2022학년도에는 학과 신설 및 개편을 통해 트렌드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려 한다. 이전의 웹·문예창작학과는 웹문예창작학과로 개편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는 보편적 학문에서부터 문학 장르별 이론학습 및 전문적인 실습 교육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사회를 주도할 전문적인 문학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웹콘텐츠 트랙, 스토리텔링 트랙, 문예창작 트랙 등 총 3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응용, 심화, 기초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는 올해 4월부터 (주)작가컴퍼니와 '웹소설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재학생 2명이 웹소설 출판 계약을 맺는 결실을 거두었다. 회화·공예전공도 눈길을 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학생 수요조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설된 학과 중 하나인 회화·공예전공은 학문간 융합,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예술문화를 이끌어갈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술학사(BFA)에 해당하는 전공으로 졸업 후 미술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미술 복원가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동서대학교도 웹툰학과를 신설했다. 동서대학교 웹툰학과는 21세기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웹툰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웹툰 제작, 스토리 창작, 캐릭터디자인 제작, 컨셉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게임학과와의 교류를 통해 협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2학년도 동서대학교 웹툰학과 수시 모집에서는 일반계고 전형, 교사추천자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실기전형으로 모집하며 웹툰학과 실기 종목은 기초디자인, 상황표현, 칸만화 중 1개를 선택해 진행된다.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자신만의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이들에게 앞서 소개한 학과들이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

오진우 평론가

출제 유형과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필 것

정시에서 여전히 수능 성적이 100%로 반영하는 학과들이 있지만, 많은 영화 및 영상 관련 학과가 면접이나 실기 고사를 선발의 중요한 지표로 여긴다. 수능등급과 학생부 성적이 높으면 폭넓게 경쟁력 있는 자리를 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영화학과 입학에서는 면접과 실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영화 연출 또는 연기전공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각 학교가 진행하는 면접 및 실기 고사의 유형을 숙지해 각 특징에 맞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학교별 면접 및 실기 고사의 온라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도 유념해야 한다.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면접고사의 경우, 대부분 지원자의 자질과 전공 이해도를 주요하게 채점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 듀이카의 영화학 전공은 실기 60%와 면접 40%의 비율을 반영하는데, 특히 면접에서는 공통적으로 응시자의 적성 여부, 지원 동기, 관심도와 열의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공 분야와 관련된 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제시된 시나리오나 사진을 관찰 및 분석한 후 면접위원에게 설명하는 구술 방식도 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화예술과는 사진 한장을 30초간 관찰한 뒤 스토리를 구상해 3분 내외로 면접관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공상식 평가를 위해 영화 창작에 관한 경험, 영화예술의 관심도 등과 관련된 질의도 동반된다.

실기 고사는 대체로 주어진 시간 내에 스토리를 창작하는 방식이다. 실기 고사와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이 70%와 30%로, 상대적으로 실기 성적에 방점을 두는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은 제시된 이미지를 토대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인당 4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지니 꾸준히 준비해온 성실성에 더해 순발력도 필요하다.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최익환 교수는 "특정한 패턴에 맞추기보다 자신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고민해온 것을 드러내는 친구들을 찾고 싶다"며 실기 고사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조언했다.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와 동일한 방식의 실기 고사를 실시한다. 고사 당일 화용지가 제시되며, 기초적인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현과 주제 해석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다. 연기전공은 실기 고사의 비중이 더 높다. 실기 고사 100%로 선발하는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연기전공과 뮤지컬전공 모두 공통적으로 지원자 고유의 특기를 반영하며 각각 자유연기와 자유곡을 평가한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연기전공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정원의 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실기를 100% 반영한다. 이처럼 입시생들은 각 학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물론 고사 유형과 실시 기간을 빠짐없이 고려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보라 평론가

영화 및 영상 전공의 편입 준비

편입학은 일정 자격을 갖춘 수험생이 4년제 대학교에 중도 입학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 후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편입은 반수(대학을 다니며 다시 수능을 보는 것)와 비교하여 학업 공백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 전적 대학의 학기 수료를 인정받기에 신입학보다 졸업까지 요구되는 학기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과 신입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다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전형별 맞춤 전략을 짜는 대비가 중요하다.

김태호 객원기자

Q 편입 전형 유형과 지원자격.

A 편입은 크게 일반편입, 학사편입, 특별전형이 있다. 일반편입은 전문대 졸업(예정)자와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학사편입은 학사 학위 소지(예정)자를 위한 전형이다.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전형은 학점 이수 조건 외에도 대학교 성적과 공인어학성적에 기준을 두기도 한다. 특별전형은 정원 외 선발 전형이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특별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입학과 다르게 편입은 대학마다 지원에 필요한 기준이 다르다. 같은 대학이라도 전공마다 전형방법 및 점수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도 많다. 각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편입 모집 요강을 공개하고 있다. 대학별 편입 모집 요강에서 자세한 지원요건, 전형일정, 전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Q 영화영상학과의 편입 전형은.

A 영화 및 영상 전공 편입의 당락을 가르는 것은 영어 점수와 실기 점수다. 영어와 실기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는 1단계 합격 여부를 영어 필기고사 점수만으로 결정짓는다. 실기 고사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도 있다.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과와 수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연극전공은 실기 고사 점수만으로 편입생을 선발한다. 단국대학교는 전공별로 이야기 구성, 연기, 가창 등을 평가한다. 수원대학교는 자유연기와 질의응답을 본다. 실기를 치르지 않는 학교는 면접으로 평가를 대체한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는 실기 대신 면접을 치르며 점수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면접은 전공 적합성과 전공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질문이 제출된다.

Q 실기 고사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까.

A 대학마다 실기 고사 평가 항목도 상이하다. 편입 모집 요강을 확인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시험을 보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화영상 전공은 이야기 구성과 영상 연출에 대한 잠재력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 구성 시험을 대비하려면 직접 이야기를 창작해 글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출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수험생에게 시험 현장에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게끔 한다. 영화 스토리와 연출에 대한 기본 지식에 자신만의 개성을 더한다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연기 전공은 지정연기와 자유연기를 평가한다. 면접 심사는 지원자의 학업 열의와 전공 지식을 가능하다. 지원하는 대학의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2학년 수준의 전공 지식을 미리 배워두는 준비가 요구된다.

영상 문화 전반을 아우르기 위한 준비



<매체의 역사 읽기>

안드레아스 빈, 안드레아스 자이들러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부제대로 '동굴벽화에서 가상현실까지' 아우르는 <매체의 역사 읽기>는 현대 사회의 매체 지평과 대중문화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에 실용적인 교양 입문서다.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화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영화가 발명되기까지의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영상매체 전반을 파악하는 데 긴요한 지식이 될 것이다. 영화 외에도 책, 잡지, 사진,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까지 인류의 매체가 변화해온 모습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설명하는 책이며, 장마다 개별 매체의 특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다양한 삽화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장마다 말미에 삽입된 연습 문제를 통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진실의 색: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

히토 슈타이얼 지음 | 워크룸프레스 펴냄

독일의 아티스트이자 현대미술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연구자 히토 슈타이얼의 <진실의 색: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은 제목 그대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쓴 이문서이며 작가의 특징에 맞게 미술과 연결된 논점들도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입시생이 극영화의 꿈을 꾸지만, 다큐멘터리는 매체와 형식만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다큐멘터리 이미지가 어떤 방식을 통해 표현되며, 현실을 담은 틀로 여겨지는 다큐멘터리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지 재고한다. 저명한 저자의 이름에 처음에는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차분히 따라 읽어가다 보면 그다지 난해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적혀 있다.

<미카엘 헤네케의 영화>

벤 매컨, 데이비드 소르파 외 지음 | 본복스 펴냄

본복스의 '영화' 시리즈는 미하엘 헤네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거장 난니 모레티, 그리고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공고한 세계를 구축한 두 감독 웨스 앤더슨과 크리스토퍼 놀란도 다룬 바 있다. 여러 저자의 글을 엮은 책이라 다양한 시각을 참고하기 좋고, 각 영화감독들의 근작까지 아우르는 노력도 기울여 업데이트된 관점을 얻을 수도 있다. 한 작품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자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흥미를 놓치지 않는 공부 오래가는 법. 관심 있는 감독을 선택해 그 감독을 바라보는 렌즈들을 참고한다면 더없이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라 평론가

<어쨌거나 밝은 무척 짙은 것이다>

유운성 지음 | 보스토크프레스 펴냄

비평가 유운성의 신간으로, '세기의 아이들을 위한 반영화입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영화입문' 앞에 붙은 '반'이라는 단어를 "'anti-'의 뜻으로 쓴 것인지 'counter-'의 뜻으로 쓴 것인지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저자의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 고정되지 않은 의미 속에서 도리어 풍부하게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평적 시도가 엿보인다.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레퍼런스는 봐야 할 영화 목록을 끊임없이 늘려가게 만들 것이고, 각자의 영화관을 넓힐 수 있는 즐거운 지적 여정이 될 것이다.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영화하는가'라는 세개의 질문을 뚜렷하게 이끌어가는 이문서이자 비평집이다.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나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원활한 취업을 독려한다



홈페이지 | movingimages.konkuk.ac.kr

전화번호 | 02-450-0590

교수진 | 박상현, 안중혁, 송낙원, 신지호, 홍상수, 최승원, 서영주

커리큘럼 | CMS진로탐색, 영상제작워크샵, 라이프드로잉, 신화와 상상력, 영상영화미학, 기초연출, 기초연기, 드로잉애니메이션, 그래픽스애니메이션, 스토리와 표현, 세계영화사, 영화촬영, 발성과 화술, 기초3D컴퓨터애니메이션, 사운드디자인, 스토리텔링, 영상영화편집, 즉흥연기, 기초영화제작워크샵, 심화영화제작워크샵, 캐릭터디자인, 모션그래픽스기초, 모션그래픽스고급, 3D컴퓨터모델링앤셋팅, 사운드와 표현, 스토리보드앤애니메틱스, 형식과 미, 매소드연기, 매체연기, 컨셉아트, 3D컴퓨터캐릭터애니메이션, 영상애니메이션보기읽기, 영화촬영2, 뮤지컬연기와 보컬, 단편영상프로젝트, 디지털인터랙티브애니메이션, 3D컴퓨터캐릭터액팅, 졸업작품컨설파 세미나, 장편시나리오, 영상영화산업론, 장면연기, 다큐멘터리영화, 3D컴퓨터라이팅, 3DFX, 졸업작품졸업공역워크샵, 취업실무, 포스트프로덕션워크샵, 졸업작품제작응용세미나, 취업실무1, 포트폴리오프로젝트

섬세한 관찰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찾는다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박상현 교수

대표적으로 꼽는 커리큘럼을 소개해달라.

영상의 전반적인 기획, 영화제작, 영상디자인, 애니메이션, 연기를 모두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전공보다 전공과목도 많다. 수강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폭넓게 수강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연출 전공 지원자의 실기 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기초디자인에 주안점을 뒀다. 데이비드 린치, 봉준호 등 저명한 감독들의 드로잉 능력과 조형성에 대한 감각은 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탁월하다. 무의미할 수도 있는 작은 것에서 조형적인 이야기를 빼낼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그림은 배제하고,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한다.

실기 고사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팁을 준다면.

역지사러운 과정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구성 능력을 갖춘 작품에 좋은 점수가 부여될 것이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장비와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고.

4K 카메라와 렌즈, 각종 조명 장비들을 노후함 없이 마련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또한 꾸준히 갖추고 있다. 유니티, 언리얼 또한 학습이 가능하며,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AR, VR, XR 등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어떤 자질을 지닌 학생을 만나고 싶나.

겸손하며 공부하려는 자세, 사소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섬세한 관찰력과 끈질긴 탐구가 신선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과소개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디자인, 프로덕션 맵핑과 같은 다양한 영상분야의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영상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학과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무리가 없는 교육을 운영하며 취업 연계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졸업 후 영상미디어 및 영화업계에서 즉시 현장근무가 가능하도록 대부분의 교과목은 실기와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 현장실무자를 강사로 투입하여 산학협동을 유도하는 '취업실무1' 교과목과 취업용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포트폴리오프로젝트'라는 교과목을 신설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쌓은 결과물을 본인들의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2학년 2학기에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진로탐색리뷰'도 주목할 만하다. 재학기간 중간 정도의 시점에 학생들의 학습결과물과 대내외 활동에 대한 리뷰를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해 학과 교수들이 학생맞춤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학과뿐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프라임 사업, 링크플러스 사업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과 기업간 일자리를 매치하는 '일학습병행제(IPP)'와 학생이 자치적으로 학기를 설계하고 학점을 부여받는 제도로서 '드림학기제' 등을 시행 중이며, 단과대별로 '학장취업총괄제'를 운영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클리닉, 동문 특강 등을 열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 다른 특징은 1학기 말에 학생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전임교수들의 심사를 통해 상장을 수여하는 'KU영상제'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이지만 각 수업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장르의 영상이 상영되며 영상영화학과만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영화학과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2학기 말에는 졸업작품 상영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약 1년간 준비한 영화를 선보이는 기회를 갖는다. 상영회의 작품들은 모두 예술디자인대학 건물에 위치한 예술영화전용관 KU시네마테크에서 공개된다. 학생들이 실제 스크린을 통해 본인들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극장을 보유한 학과만이 지니는 큰 장점이다. 더불어 초대형 스튜디오, 사운드 녹음실, 다량의 워크스테이션과 22인치 신티크를 보유한 영상 제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니 a7SII, 소니 FS-5, 레드 원 M/X 등의 카메라 장비도 구비하고 있다.

입시전형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는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계열별) 반영영역에 응시한 자이면 된다. 2022학년도에는 정시를 통해 45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수능 60%와 실기 40% 비율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금) 오전 10시부터 2022년 1월3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기초적인 조형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 고사를 1월15일(토)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2월8일(화) 오후 2시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enter.konkuk.ac.kr)를 확인하자.

글 이보라 평론가 · 사진제공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한다



홈페이지 | ft.khu.ac.kr/html

전화번호 | 031-201-2672

교수진 | 이효인, 김정호, 김재성, 김학민, 이영석

커리큘럼 | **연극트랙** / 뮤지컬사, 세계연극사, 오디션테크닉, 연극연기연출론, 극장스태프와 무대미술, 극장스태프와 조명1, 극장스태프와 조명2, 극장스태프와 음향, 노래해석, 음악극문헌과 연기, 음악극분석, 음악극연기연출론, 희곡문헌과 연기, 충동과 즉흥, 화술과 소리1, 화술과 소리2, 대사연기1, 대사연기2, 대사연기3, 연극워크샵, 연극창작실습, 공연분석, 카메라연기와 촬영1, 카메라연기와 촬영2, 제작실습1, 움직임과 소리1, 움직임과 소리2, 음악극워크샵, 뉴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음악극창작실습, 제작실습2, 개별프로젝트1, 개별프로젝트2
영화트랙 / 이미지와 사운드, 영화사, 비디오제작실습, 시나리오창작기초, 현대영화연구, 초급영화이론, 디지털편집실습, 영화촬영기초, TV 제작, 디지털다큐멘터리제작, 고급촬영과 조명, 사운드프로덕션, 단편영화와 시나리오, 현대영화이론, 영화제작실습, 영화편집연구, TV-CM/뮤직비디오제작실습, 영상마케팅, 한국영화연구, 고급시나리오창작, 영화비평연구, 현대한국영화연구, 캡스톤디자인1(연극영화학), 캡스톤디자인2(연극영화학), 장면구성과 연출

소신을 가지고 스스로 사유하라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이영석 학과장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로에 대한 소신, 다른 하나는 진로에 대한 꾸준한 활동과 탐색이다.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연극·뮤지컬 연기 전공을 선발한다. 팁을 준다면.

1단계는 영상 심사, 2단계는 대면 심사로 이루어진다. 우선 1단계 영상 심사에서 유의할 점은 화질이나 사운드에 특별한 보정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요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단계에서 연기력이 관건이다. 판에 박힌 연기와 미리 만들어놓은 대답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포인트는 스스로 사유하라는 것이다. 인물의 진정성을 자신이 해석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만들어낸 연기가 좀더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이다. 학과 차원에서 변화가 있다면.

위드 코로나는 변혁보다는 회복을 기조로 삼는다고 생각한다. 공연의 경우 대면이 중요하기에 과거처럼 공연을 올려서 관객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촬영도 마찬가지다. 방역에 철저히 유의하면서 최대한 활발하게 공연 활동과 영화 작품 활동을 해나가자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학교 역시 대면 수업으로의 회복을 탐색 중이다.

커리큘럼상 변화가 있다면.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로 '영화 쟁점과 콘텐츠 제작'이란 과목을 신설했다. 영화를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에 맞춰 제작 및 실습을 해보는 수업이다.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판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유는 진취성, 도전성, 자율성이 기반이 되어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과소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조이현, <아구소녀>로 제4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후보에 오른 이주영, <오징어 게임>에서 카메라로 나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공유. 최근 몇년간 인상적인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세 배우의 공통점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이라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1999년 예술디자인대학 내 예술학부와 함께 신설된 전공으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연극·영화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연극트랙과 영화트랙으로 나누어 다양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연극트랙은 전통적인 형식의 일반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시어터와 영상연기, 교육연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익힐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 전인교육을 목표로 삼는다. 영화트랙은 촬영, 조명, 연출, 제작, 편집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실기 교육을 한다.

연극영화학과는 총정원 38명으로 소수 정예로 운영되며 일대일 맞춤수업을 자랑한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을 몇 차례에 걸쳐 보완 및 수정을 거듭해왔다. 이렇게 완성된 현 커리큘럼은 5년마다 대대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 신설된 '뉴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목이 대표적이다. 이 과목은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 시장을 익히고 실제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한다. 2022학년도에는 '영화 쟁점과 콘텐츠 제작'이란 과목이 신설된다.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학과는 정기공연과 졸업작품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2021년에 제작실습 정기공연으로 연극 <하염>을 무대에 올렸고 지난해와 다르게 관객을 받아 공연을 진행했다. 겨울 정기공연으로는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시설적인 측면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560석 규모의 극장(A&D홀)과 60평 규모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 녹음실, 다양한 규모의 연기 랩실과 영화 랩실, 의상실과 분장실, 소품실, 무대제작실, 출연자 대기실을 학과 내에 모두 마련해두었다. 극장과 촬영 스튜디오는 실제 수업과 연계한 실습 장소와 공연 장소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며, 해마다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시즌 공연과 영화제는 10여회씩 열리고 있다. 학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며 졸업 후 연극, 뮤지컬,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진출하여 제 몫을 다해내고 있다.

입시전형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수시 모집으로 총 22명을 선발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으로 연극·뮤지컬 연출 전공 2명과 영화연출 및 제작 전공 5명을,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연극·뮤지컬 연기 전공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 모집에선 연극·뮤지컬 연출 전공 2명과 영화연출 및 제작 전공 14명을 선발한다. 두 전공 모두 나군에서 선발하고 실기 고사 없이 수능성적 100%를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2021년 12월31일(금) 오전 10시부터 2022년 1월31일(월)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수시 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를 참조하자.

글 오진우 평론가 · 사진제공 경희대학교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가

현업에서 제작 트렌드를 읽어내는 교수진이 강점



홈페이지 | uni.dongseo.ac.kr/movie/

전화번호 | 051-950-6543

교수진 | 이종찬, 손현석, 남인영, 김대승, 이무영, 김정선, 제창규, 강동헌

커리큘럼 | 영화입문, 극작, 영화기술, 전공탐색1, 전공탐색2, 영화사, 영화편집기초, 영화제작기초워크샵, 시나리오작법, 다큐멘터리제작실습(캡스톤디자인), 영화연출, 촬영과 조명기초, 동시녹음기술, 영화사2, 영화제작실습(캡스톤디자인), 사운드프로덕션, 연기연출, 촬영-비주얼스토리텔링, 한국영화사, 영화장르연구, 영화워크샵(캡스톤디자인), 제작기획입문, 디지털포스트프로덕션, 촬영과 조명심화워크샵1, 영화분석과 비평, 영화워크샵2(캡스톤디자인), 워크샵작품분석, 제작기획실습, 시나리오워크샵(캡스톤디자인), 촬영과 조명심화워크샵2, 영화워크샵3(캡스톤디자인), 뉴미디어시네마토그래피, 영화워크샵4(캡스톤디자인), 영화마케팅과 배급

현장 연계성을 높인 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이무영, 강동헌 교수

영화과는 학생 실무 역량 배양이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나.

강동헌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설비를 구비하고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를테면 '촬영 라이선스' 제도가 있다. 학생들은 기기 사용법 평가를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다. 장비만 마련하고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장비 사용 숙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무영 학교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학생들은 영화 제작 능력을 기르고 있다. 실무 중심 교육과 좋은 제작 여건을 밑거름 삼아 내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장편영화를 만들도록 하는 게 목표다. 동서대학교 동문들이 꾸준히 영화제에 진출하고 있다. 원동력이 공급하다.

이무영 실무 중심 교육의 결실이라고 본다. 현장 연계성을 높인 교육 덕에 영화제 출품은 물론 산업 현장에 제작진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

강동헌 학생 입장에서 졸업 후에 영화를 만든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두려움을 깨는 게 동서대학교의 4년 실무 위주 교육이다. 단련된 졸업생들은 수월하게 현업에 도전하고 적응한다.

예비 영화학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동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스스로 이해하려는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 직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무영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영화는 인간을 연구하는 예술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 작동 원리에 대해 풍부한 관심을 두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학과소개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는 영화계에서의 활약이 돋보이는 영화인들로 교수진을 꾸렸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인 이종찬 교수를 비롯해 사운드디자인 전문가 손현석 교수, <한강블루스>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무영 교수 등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동서대학교 영화과는 시나리오 개발부터 후반 사운드 작업까지 영화 기획·제작 과정에 전문 담당 교원을 확보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교수진 일부가 현재 영화 현장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도 동서대학교 영화과의 장점이다. 2021년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뒤틀린 집>을 선보인 강동헌 교수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응하지 못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교수들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영화 제작 트렌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원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대학교 영화과는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화계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학생들을 지도하며 영화과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이무영 교수는 "각 분야에서 관록이 쌓인 교수들이기에 학생의 작업을 지도하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개선 방향 제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동헌 교수는 "여러 교수에게 동시에 지도를 받으며 다양성을 기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무 중심 교육에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서대학교 영화과는 산업 현장에 쓰이는 설비를 확보하며 전문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두고 있다. 알렉사 미니, 쿼크 프라임 렌즈 등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촬영 장비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편집실을 여러 개 마련했으며 촬영 스튜디오, 색보정실, 믹싱룸, 사운드 편집실도 따로 이용할 수 있다. 3학년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졸업 전에 장편영화를 제작해 재학생들이 졸업 전 데뷔 기회를 갖는다.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린 동서대학교 영화과 출신들의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기남 감독의 <시월의 장마>가 제9회 부산독립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2018년엔 오원재 감독의 <낯선 자들의 땅>이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다. <낯선 자들의 땅>은 오원재 감독이 재학생 시절 장편영화 제작 지원을 받아 만든 영화다. 권하정, 김이현 감독이 공동 연출한 <틀보인간의 생존신고>는 서울독립영화제2021 장편경쟁부문에 올라 호평을 받았다. 이태동 디테일스튜디오 대표는 웹드라마 <홍홍>를 발표 후 유튜브와 왓챠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21 뉴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에서 웹드라마 부문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영화와 드라마 현장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서대학교 출신 동문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입시전형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는 2022학년도 총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중 35명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며 5명은 정시 모집에서 선발한다. 동서대학교 영화과 정시 모집은 가군 일반전형이며 수능 점수뿐만 지원자를 선발한다. 수능 점수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과목의 표준점수를 25%씩 반영한다. 정시 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30일(목)부터 2022년 1월3일(월) 18시까지며 합격자 조치는 2월8일(화)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총원기간은 2월11일(금)에서 2월20일(일) 21시까지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동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seo.ac.kr/ip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김태호 객원기자 · 사진제공 동서대학교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나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지향한다



홈페이지 | ssfilm.ssu.ac.kr

전화번호 | 02-828-7180

교수진 | 최익환, 김광식, 조성희, 손태경, 이옥섭, 전려경, 남연우, 김성은

커리큘럼 | 이야기 발상법, 단편영화읽기, 감각과 감정, 크리틱, 디지털필름메이킹, 스테이징, 장편영화장면연습, 시나리오쓰기, 영화 연기, 오디션 연습, 디지털후반작업, 영화 기획·프로듀싱, 졸업작품, 졸업공연, 비주얼스토리텔링워크숍, 프로덕션디자인, 영화 배급·마케팅, 산학연계교육, 디렉티드 스터디, 프로듀싱세미나

자기다운 개성이 가장 중요하다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최익환 교수

대표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해달라.

‘크리틱’이라는 제작수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편집, 연기 등의 모든 수업들이 배치된다. 한 수업에 세 명의 교수가 동시에 진행한다. 2, 3학년 합쳐 총 10 작품을 만드는데, 제작과정에서 전 학년이 작품마다 꼭 참여한다.

교수진 및 강사진이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망라하는 구성이다.

어떻게 보면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학과이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계에 있는 이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하려 했다.

실습에 방점을 둔 교육이다.

처음부터 시나리오의 ABC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차피 그건 책과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를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기 고사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학생을 보는 게 우선적이지만, 특정한 패턴에 맞춘 것보다는 자기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왔음을 드러내는 친구들을 찾고 싶다. 완성된 사람을 찾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온 학생은 질문을 해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다운 면서도 개성 있게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자질을 지닌 학생을 보고 싶나.

몸이 끌려서 오는 사람.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끝까지 가기 어렵다. 정말 이게 아니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는 게 맞다. 덕지덕지 치장하기보다 단정한 맨얼굴처럼, 원석에 가까운 친구들이 필요하다.

학과소개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은 2015년 신설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성취는 유수의 영화제들에 초청받은 작품들의 면면에서 일찌감치 증명되었다. 2020년 제73회 칸국제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초청된 김민주 감독의 <성인식>, 부산국제영화제와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한태의 감독의 <웰컴 투 X-월드> 또한 이곳에서 배출해낸 걸출한 성과다. 매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일궈내고 있는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의 비법은 무엇일까.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은 커리큘럼에 있어 현장과의 연계성에 큰 무게를 둔다. 우선 교수진 및 강사진 대부분이 이미 여러 편의 작품을 연출한 감독들이다. 전 한국영화 아카데미 원장 출신이자 현재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최익환 교수도 최근 <마이센>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현직 감독이다. <안시성> <내 강때 같은 애인>의 김광식 감독, <승리호>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처럼 이미 상업영화에 안착한 베테랑 연출자들은 물론, 이옥섭·손태경·남연우 감독 등 독립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들까지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딱딱한 강의보다 모두 함께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실습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비롯한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익환 교수는 “교수법을 벗어나서 교수들 스스로 오랫동안 가져온 영화에 대한 믿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크리틱’이라는 제작 클래스는 이 학과의 키 수업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전 학년이 합동해 영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한 후 평가를 주고받는다. 첫 수업이 시작하는 월요일에 학생들이 방학 동안 쓴 시나리오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정형화된 단계를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키기보다, 거칠어도 좋으니 스스로 고민해온 결과물을 먼저 나누는 방식이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6주차에는 해당 학기에 완성할 총 5편의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이때 선발된 시나리오의 작가들이 감독, 프로듀서, 주연배우, 촬영 등의 메인 스태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장비는 학교간 비교의 첫 번째 척도’라는 모토로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상업영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아리 알렉사 미니, 캐논 C500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또한 매 학기 시행한다. 학생들로 이뤄진 기술부가 이 교육을 담당하며,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제도를 통해 라이선스 보유자 3인이 있어야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교육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이렇듯 장비 사용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시전형 송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은 총정원 38명의 영화 연출과 연기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기관이다. 정시 나군에서 연출 전공 22명을 선발하며, 실기와 수능성적을 각각 70%와 30%로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2021년 12월31일(금) 오전 10시부터 2022년 1월3일(월) 오후 6시까지며, 1월7일(금) 오전 10시에 실기 고사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이 게재될 예정이다. 1월14일(금)부터 1월17일(월)까지 주어진 이미지를 토대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실기 고사를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2월8일(화)에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hak.ssu.ac.kr/)를 참조하자.

글 이보라 평론가·사진제공 송실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현장에 버금가는 풍부한 실습 기회



홈페이지 | ipsi.jb.ac.kr

전화번호 | 02-3789-2020

교수진 | 임주현, 김성택, 손지영, 최중환, 김영래, 서철, 김영빈, 송성완, 이상준, 이철웅, 임민, 장서현, 강마루

커리큘럼 | 공연장운영과 기획, 극장일반상식, 뮤지컬명작실기, 발상과 표현, 시창창음, 연기, 움직임, 합창, 희곡읽기와 분석, 연극개론, Vision프로젝트: 행복한 연기여행, 공연제작워크샵(연극/뮤지컬/공연기획제작), 댄스, 보컬, 연극사, 프로덕션워크샵, 공연기획과 제작, 무대디자인과 기술, 뮤지컬양상론, 뮤지컬연기, 스타일연기, 연출의 이해, 카메라연기, Down Stage, 연출과 연기, 오디션프로젝트, 인턴십프로젝트, 전공커리어세미나, 졸업프로젝트(연극/뮤지컬/공연기획제작), 공연댄스프로젝트, 보컬프로젝트, 축제와 이벤트기획

재능을 즐길 줄 아는 인재를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임주현 학과장

실기 고사에서 자유연기, 자유곡 심사를 만든 이유는, 입시에 맞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질과 꿈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다. 정통 연극이나 뮤지컬이 아닌,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 대중가요로 도전해도 좋다.

실기 고사를 준비할 때 염두에 둘 부분은, 부담감과 압박감에 위축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 연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흥분 빠진 상태, 예술하려는 사람으로서의 자유로운 기운, 면접장에 들어와서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재능을 해소하고 나가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현장에서는 어떤 소양을 주로 평가하나. 인터뷰가 무척 중요하다. 미리 틀을 짜두고 준비하지 말길 바란다. 학교, 동료와 함께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열린 인재인지, 함께 어우러질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부소개 2009년 방송연예전공에서 출발한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2019년 학부 재편을 통해 연기전공, 뮤지컬전공, 공연기획제작전공으로 전공을 세분화해 전문화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지향한다. 2014년부터 명동캠퍼스에 공연제작센터, 멀티강의실을 개관해 연기실습과 공연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본거지로 삼고 있다. 공연예술학부는 전공별로 예술가의 능력을 세 가지로 분화한 트리플-트리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공한다. 연기전공은 배우의 신체, 목소리, 캐릭터 개발의 3가지 기능을 골고루 갖춘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 높은 창조적인 배우를, 뮤지컬전공은 연기, 노래, 춤의 3가지 기능을 골고루 갖춘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창의적인 배우를, 공연기획제작전공은 기획, 연출, 스태프 등 3가지의 기능을 골고루 갖춘 융합형 개척정신을 지닌 다양한 예술현장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제27회 젊은연극제 참가작 <남산시민아파트 204호>로 연출상을, 제28회 젊은연극제 참가작 <이상한 동그라미>로 우수연기상, 우수스텝상을 수상한 이력도 주목할 만하다.

입시전형 정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는 2022학년도 정식 모집에서 30명을 모집하며 실기 고사 100%로 선발한다. 실기 전형은 세부 전공별로 유형이 다르다. 연기전공은 자유연기와 특기, 뮤지컬전공은 자유곡과 특기, 공연기획제작전공은 작품 분석 후 발표를 통해 평가받는다. 정식 모집기간은 2021년 12월30일(목)부터 2022년 1월 12일(수)까지다. 자세한 실기 고사 일정과 입학 정보는 정화예술대학교 입학 홈페이지(jb.ac.kr/web/ipsi)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글 김소미 · 사진제공 정화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영상미디어학부

현장 연계형 학습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홈페이지 | ipsi.jb.ac.kr

전화번호 | 02-3789-2020

교수진 | 이재용, 전기주, 차현희, 한동현, 오중연, 양정우, 박현규, 이상노, 심상재, 황성운, 백철기, 강원영

커리큘럼 | 그래픽디자인, 사진기초, 영상연출, 영상편집, 이미지와 스토리창작, 촬영과 조명기초, 영상학개론, 디지털스토리텔링랩, 모션그래픽, 사운드디자인기초, 영상콘텐츠제작, 촬영과 조명, 영상미학, 사운드디자인, 영상특수효과, 영화제작워크샵, 오리지널IP콘텐츠기획, 디지털미디어전략, 영상세미나, 행복한미디어여행, VFX 스튜디오 방송구성과 대본, 드론및특수촬영, 다큐멘터리영상디자인, D.I, 브랜드커뮤니케이션캠페인, MC리포터실습, 쇼호스트진행, 기상캐스터실습

교육기관이자 플랫폼 정화예술대학교 영상미디어학부 한동현 학과장

신설된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미디어크리에이터전공은 어떤 지향점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나. 뉴미디어콘텐츠전공에서는 오리지널IP콘텐츠기획 수업을 통해 하나의 IP를 여러 포맷으로 확장해나가는 최근의 트렌드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려한다. 쇼호스트, MC, 리포터, 기상캐스터 등의 직군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나간다.

실습이 중요한 영상 관련 학과인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겠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더라도 분반을 통해 소수가 모여 꾸준히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장비가 발달하면서 영상 프로덕션에 필요한 인원도 줄고 있는 추세다. 서울 중심부에 자리해 오픈스튜디오 개념의 미디어센터를 보유한 학교인 만큼 학생들에게 개방된 작업 라운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향후 더욱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학부소개 2020년부터 학부 명칭을 영상미디어학부로 바꾸고 방송영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미디어크리에이터전공을 신설한 정화예술대학교 영상미디어학부는 철저한 산학연계를 통한 실기 위주의 학습을 지향한다.

방송영상전공은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기존의 영상예술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 기술을 연구하고 지식을 함양한다. 방송프로그램 디렉터(PD, 감독), 영화감독, 촬영감독, 편집감독, 사운드디렉터, 영상특수효과 제작자 등으로 진로를 고민한다면 방송영상전공을 택하는 것이 좋다. 뉴미디어콘텐츠전공은 2019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전공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별 특성을 세분화해 접근한다. 영상디자이너, 광고제작, 영화 및 콘텐츠 연출가, 시나리오작가,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등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미디어크리에이터전공은 2021학년도 신설 전공으로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급변하며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으로 진출할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교육한다. 유튜버, 쇼호스트, MC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입시전형 정화예술대학교 영상미디어학부는 2022학년도 정식 모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학생부 100%) 10명, 수능 중심 전형(수능 100%) 10명 등 총 20명을 선발한다. 정식 모집기간은 2021년 12월30일(목)부터 2022년 1월12일(수)까지다. 자세한 실기 고사 일정과 입학 정보는 정화예술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jb.ac.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글 김소미 · 사진제공 정화예술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넓은 스펙트럼에서 자신에게 맞는 가치를 찾기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홈페이지	khcu.ac.kr/music, khcu.ac.kr/art, khcu.ac.kr/media
전화번호	02-3299-8643, 02-3299-8673, 02-3299-8674
교수진	실용음악학과 / 조규찬, 고경재, 길한나, 김정욱, 김정은, 류은주, 박정은, 서초미, 안시현, 이도협, 이해문, 최요섭, 강지은, 김병렬, 박라은, 신사빈, 이은영, 임슬기 문화예술경영학과 / 전한호, 강윤주, 배미현, 유미, 정태진, 이선철, 김혜준, 김응상, 김주연, 이원재, 전태일, 권기원, 신창섭, 임승관, 오준석, 이해성, 임진모 미디어영상홍보학과 / 민경배, 최영일, 심영성, 공선영, 박아름, 김태훈, 서득현, 박영민, 양승오, 이혜수, 하동훈, 정영선, 김세현, 김민정
커리큘럼	실용음악학과 / 실용음악작곡기초, 음악창작과 음악저작권, 보컬테크닉, 피아노클래스, 시창청음, 음악의 기초, 실용음악작곡기초, 라이브퍼포먼스테크닉, 재즈음악사, 홀레코딩기법, 컴퓨터사보법, 블루스클래스, 리듬클래스, 대중음악의 역사, 실용음악편곡법, 유틸리티기법, 실용음악작곡법, 화성법, 재즈즉흥연주기법, 무대조명과 극장기술,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재즈라이프, 모던클래식음악의분석, 월드뮤직, 보컬편곡법, 화성분석, 뮤직비즈니스, 대중음악의 이해 문화예술경영학과 / 무대조명과 극장기술, 문화예술사, 예술세계의 이해, 박물관/미술관학개론, 전시기획론,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현대미술읽기, 지역예술공간탐방, K-뮤직비즈니스, 문화예술홍보와 재원조성, 지역문화정책론, 문화정책과 예술현장, 공연예술기획론,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운드엔지니어링,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현대미술연구, 사운드엔지니어링, 대중음악의 이해, K-공연예술의 세계, 예술사회학, 생활예술론, 문화예술교육개론, 지역문화예술기획 미디어영상홍보학과 / 대중문화와 미디어, 디지털미디어의 이해, 정보사회의 쟁점, 문화콘텐츠개론, 미디어윤리와 미디어리터러시, SNS의 이해, PR과 캠페인, 디지털마케팅, 커뮤니케이션론, 콘텐츠스토리텔링, 영상제작실무, 미디어와 여론, 광고의 이해, 모바일과 사회변동, 온라인홍보전략,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미디어플랫폼비즈니스전략, SF영화와 인공지능로봇, 데이터커뮤니케이션, 영상으로 읽는 문화콘텐츠, 디지털방송의 현재와 미래, 방송스피치, 크리에이티브광고전략,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

전공과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사고해야 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조규찬 교수
문화예술경영학과 전한호 교수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민경배 교수

학과의 대표적인 특징을 소개해달라.
조규찬 생산의 편의만을 따라가는 현재의 음악시장을 재고하면서, 음악예술이 본래 갖는 기초와 규율을 탄탄히 교육하는 데 집중한다.
전한호 글로벌 트렌드에 힘입어 지난 학기부터 K-ART 트랙을 신설했다.
민경배 영상 제작 및 기획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비롯해 '디지털미디어의 이해', 'SNS의 이해'처럼 최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과목들을 열고 있다. 자기소개서 준비에 조언을 해준다면,
조규찬 실용음악학과에 오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원하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쓰면 좋을 것 같다.
전한호 어떻게 문화예술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왔는지에 관한 스토리가 녹아 있어야 한다.
민경배 진학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온다. 배움을 통해 향후 진로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를 작성해야 한다. 전공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있다면,
조규찬 음악의 아카데미한 측면과 규율을 성실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지닌 학생이면 좋겠다.
전한호 한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는 문화예술의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민경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스테레오타입화된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발상과 실험적인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길 바란다.

학과소개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음악 창작인의 배출을 위한 음악교육을 추구한다. 학생들이 논리적, 구조적 접근으로 정합성을 내포하는 음악, 감성적 언어로서의 음악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구성한다. 학과장인 조규찬 교수를 필두로 녹음과정 전반(작곡, 편곡, 연주녹음, 보컬녹음, 믹싱)에 걸친 총괄 프로듀스(기획, 녹음지도, 감독)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직접 음원을 발매하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 실무 체험 또한 가능하다. 매년 진행되는 음원 발매에 대해 조규찬 교수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프로 뮤지션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인다.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활성화를 선도할 인재들을 위한 학문 공동체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K-ART, 정책 및 문화기획의 네 트랙으로 나뉜다. 학생들이 공연 및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되어 있어, 올해는 지역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예술 관련 영상을 모집해 콘테스트를 열었다. 이는 현재 문화예술경영학과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역문화와도 연계되는 지점이다. 학과장인 전한호 교수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넘어 이제는 지역성까지 고민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직접 기획하는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영상홍보학과는 날로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영상 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 수요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실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도 제공하며, 학생들은 미디어 융합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학과장 민경배 교수는 “미디어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모셔왔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 중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교과목을 개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입시전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편입도 가능하다. 수능이나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자기소개서 80%와 인성검사 20%를 반영해 인원을 선발한다. 2022학년 1학기 1차 모집은 2021년 12월1일(수)부터 2022년 1월11일(화)까지다. 합격자는 1월17일(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khcu.ac.kr/ipsi)에서 발표된다.
글 이보라 평론가 · 사진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웹에서 창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작가의 탄생을 돕는다



홈페이지 | lc.iscu.ac.kr

전화번호 | 02-944-5000

교수진 | 김준현, 최호빈, 손효임, 이상우, 차명희, 박선민, 임예나, 성배순, 송민희, 최원대, 강정구

커리큘럼 | 문예창작첫걸음, 글쓰기기초와 구상법, 문예기초철학, 웹소설의 이해, 문학개론, 블로그와 SNS글쓰기, 스토리텔링기법, 시간 무엇인가, 한국어어문규범, 소설창작론, 수필집게쓰기, 웹스토리텔링, 이야기치료, 디지털출판, 문장지도, 문학과 비평, 사이버리터러시, 정서심리학, 한국문학의 이해, 웹콘텐츠창작, 웹툰실습프로젝트, 유튜브기획제작, 영화, 드라마시나리오, 독서와 논술지도, 독서치료, 신화와 내러티브, 문학예술의 흐름, 문화예술과 관광, 스토리텔링영상, 웹소설창작실습, 문학과 저널리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작실습, 웹툰시나리오

웹 리터러시도 키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김준현 학과장

최근의 웹문예, 웹 매체 콘텐츠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 웹소설, 웹툰 등 웹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장르들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소설, 시, 에세이 등의 전통적인 문학 장르도 종이책에서 웹으로 본거지를 옮기려고 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블로그, SNS를 통해 글을 발표하고 인기를 얻은 작가들이 주요 사례다. 창작 역량뿐 아니라 미디어 역량, 그리고 웹 리터러시를 키우는 게 웹 시대에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학과에서도 창작뿐 아니라 매체를 이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특강과 동아리 활동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 학생들의 참여도나 활동 성과도 궁금하다. 웹소설이나 웹툰의 작가뿐 아니라 기존의 전통 장르 작가들을 두루 모시려 한다. 웹문예 시장이 커지는 만큼 웹 플랫폼, 출판사, 기획사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산되고 있다. 이 종사자들을 모셔서 창작, 취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학과소개 레거시미디어인 종이책에서 웹으로 문예창작과 유통의 주류가 옮겨오는 지금,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는 문학 이론과 창작 능력을 익히고 함양시키는 데 더해 웹을 통해 문학을 발표하고 유통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사이버대학교뿐 아니라 국내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웹문예’ 교육을 표방한 경우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김준현 학과장은 웹문예가 현재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최신 장르인 만큼 “변화무쌍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전 연재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업로드, 즉 출판이 자유로운 만큼 습작과 실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플랫폼과 출판 업체(cp 업체)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과 방침에 따라 JC(작가컴퍼니)와 맺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는 평생직업 시대를 대비하는 소양으로서 문학 지식을 웹 환경에 적합한 작품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균형 있는 커리큘럼이 돋보인다.

입시전형 서울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 웹문예창작학과는 전형 방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공통 절차를 따른다. 지원자는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을 서술한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을 살피는 적성평가(학업준비도검사)를 치러야 한다. 적성평가 30%, 학업계획서 70%가 입학 성적에 반영된다. 2021년 12월1일(수)부터 2022년 1월12일(수)까지 지원서를 받으며 합격자는 1월18일(화)에 발표된다.
글 김소미 · 사진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회화 · 공예전공

청년과 중장년을 아우르는 예술적 자기 계발의 커리큘럼



홈페이지 | pnc.iscu.ac.kr

전화번호 | 02-944-5000

교수진 | 이부연, 이항아, 정규리, 이종분, 우소정, 홍선관, 김준현, 신기정, 장선아, 이보영, 이태경, 조원진, 주혜영, 최석영, 윤지현, 강정구, 박선민, 우정숙, 배찬우

커리큘럼 | 가구디자인, 글쓰기기초와 구상법, 기초회화표현, 캐릭터디자인, 섬유코디네이션디자인, 공공디자인, 미술치료, 생활아트디자인, 문예창작첫걸음, 색채디자인, 조명디자인, 색인필아트, 출판편집디자인, 수묵채색기법,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미술치료학개론, 디지털출판, 공예디자인, 영상디자인실무, 조경디자인, 회화작품연구, 목공예제품디자인연구, 뷰티일러스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코디네이션전략, 스토리텔링기법

현장 전문가 키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회화·공예전공 이항아 부총장, 정규리 교수

신설 학과인 만큼 회화 · 공예전공의 새로운 필요성에 대해 들려준다면.

이항아 최근 미술 시장의 호황, NFT, 기업 컬래버 등의 현상을 보면 회화나 공예의 수요 가능성은 미래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도 클 듯하다. 대표 교과목을 소개해달라.

정규리 우리 전공의 자랑거리라면 디자인대학의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융복합적인 학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항아 글로벌 무대, 국내외 미술 현장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규리 미술사, 미학, 예술학, 미술치료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관, 갤러리, 요양 보호기관 및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대학원 진학 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교사로 취업할 수도 있다.

학과소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새롭게 신설한 회화 · 공예전공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한 이미지 리터러시에 대한 실습과 연구에 중점을 둔다. 회화 · 공예전공 정규리 교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는 물론,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심리적 해소, 정신의 풍요 또한 꼼꼼히 챙기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로는 유일하게 수목화, 민화 등 전통 회화를 포용해 교과목의 스펙트럼 또한 넓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자체 역량으로 개발해 특허 출원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VX, Virtual eXperience)이 구축된 아트 테크 스튜디오를 통해 보다 양질의 이러닝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회화 · 공예전공의 큰 장점이다. 재학기간 동안 전문 회화 작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고 다양한 기법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지도교수의 컨설팅을 통해 각종 공모전 출품 및 전시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공립 아트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역시 지도받을 수 있다.

입시전형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융합인재학부 회화 · 공예전공의 전형 방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공통 절차를 따른다. 지원자는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을 서술한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을 살피는 적성평가(학업준비도검사)를 치러야 한다. 적성평가 30%, 학업계획서 70%가 입학 성적에 반영된다. 2021년 12월1일(수)부터 2022년 1월12일(수)까지 지원서를 받으며 합격자는 1월18일(화)에 발표된다.
글 김소미 · 사진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

영화 제작 워크숍 중심의 수업으로 실전 경험



홈페이지		ducsi.ac.kr
전화번호		02-2260-8554
교수진		김재영, 최병근, 김훈광, 이남훈, 배형준, 김아론, 김지훈, 김창진, 윤장호, 서승현, 윤민경, 김경민, 한승지, 김은동, 이경자, 유정주, 강철규, 이민호, 우승미, 김홍준, 최선홍, 최은진
커리큘럼		영상매체론, 영화기술, 영화비평, 영화사, 영화이론, 영화제작워크숍, 영화학개론, 기초연기, 디지털영화제작, 사운드디자인,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창작연습, 영화기획, 영화연기, 영화연기분석, 영화연기지도, 영화연출론, 영화와 회화, 영화조명, 영화촬영, 영화편집론, 작품분석, 카메라연기, 프로덕션디자인, 필름편집실습

영화 제작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다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
김재영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비대면 강의를 늘였는데, 실습이나 교내 영화제 등은 어떻게 진행했나. 2020년 1학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2학기부터 실습 위주 수업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대면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이 커리큘럼의 핵심이다 보니 코로나 19 상황에도 단편 제작을 이어갔다. 다행히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2학기에는 교내 영화제도 개최할 수 있었다.

5학기제 커리큘럼이 가진 특징과 강점이 무엇인지 소개한다면.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학점은행제 기관이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 조건에 맞게 매 학기 수업이 편성되어 있다. 영화학 전공의 경우 교양·이론·실습 수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학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위해 방학부터 교수진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고, 1주차 강의에 피칭을 진행하는 편이다. 학생들이 영화 제작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학생 선발을 위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 기본적인 영화 상식을 묻는다. 세부 전공을 나눠서 학생을 뽑지는 않지만 연출, 촬영 등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진다. 무얼 공부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다. 연기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정 연기와 본인이 준비한 연기를 본다. 단편영화 한편을 보고 감상문을 쓰는 실기 전형도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전공소개 동국대학교 DUICA(이하 듀이카)는 1975년 설립된 동국대학교 전산원의 새 이름이다. 이는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for Core Ability'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핵심역량교육원'을 뜻한다. 컴퓨터공학 및 멀티미디어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 행정, 광고, 관광, 영화 등 다양한 전공 스펙트럼을 포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존재한 동국대학교 듀이카 원장은 "시대에 맞는 새 명칭이 필요했다"라며 "향후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핵심 인재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 또한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 중이다. 2007년 설립된 영화학 전공은 영화영상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영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트랙은 영화영상제작 전공과 연기 전공으로 나뉘는데, 제작에서부터 이론, 연기 등 영상 제작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5학기제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강의는 영화이론, 연출, 제작, 촬영, 기획, 시각특수효과, 프로덕션디자인, 분장 등 다채로운 분야를 전공한 교수진이 맡고 있다. <자칼이 온다> <소년은 울지 않는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연출한 배형준 감독과 <늑대소년>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사운드엔지니어로 참여했던 김은동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에서는 위 커리큘럼에 따라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을 수료하면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의 강점은 영화 제작 워크숍 중심의 수업으로 실전 경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20학번 김채림 감독이 <달을 삼키는 새>로 제2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대학부 본선에 진출하고, 17학번 조민서 감독이 제3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17학번 김수한 감독의 <은사>, 16학번 유아영 감독의 <소화불량>이 각각 대한민국대학영화제, 보스턴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낭보를 전했다. 14학번 김철취 감독이 연출한 <모범시민>이 제1회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경쟁부문 본선에 진출한 사례는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이 자랑하는 성과다.

동국대학교 듀이카에서 단기간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타 대학으로 편입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만 212명이 편입 시험 및 대학원에 합격했다. 제작실습 중심의 전문 영화 영상인 양성소를 추구하는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은 영화를 꿈꾸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입시전형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듀이카 주간 학사과정 영화학 전공 모집 정원은 영화영상제작 트랙 30명, 연기 트랙 30명으로 총 60명이다. 영화과 학생 선발은 수능과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100% 실기 및 면접 전형(실기 60%, 면접 40%)으로 이뤄진다. 실기 시험은 당일에 제시되는 15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보고 양식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쓰는 작문 시험이다. 연기전공 지원자는 자유연기 및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다. 정식 원서접수 기간은 면접은 문답식으로 이뤄지며 지원 동기 및 목적의식, 예술적 관심사와 경력 등을 질문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매주 갱신된다. 2021년 12월19일~24일(면접 25일), 12월26일~30일(면접 31일), 2022년 1월1일~7일(면접 8일)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듀이카 홈페이지(ducsi.ac.kr)에 안내되어 있다.

글 남선우 · 사진제공 동국대학교 듀이카

졸업 후 진로 가이드

미디어 지형은 빠르고 복잡하게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전공 구분과 커리큘럼을 재편하는 학교가 급증하는 흐름이 이를 방증한다. 2022년 신입생을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화영상 관련 학과의 교수진들은 새로운 플랫폼, 뉴미디어콘텐츠, 웹·이미지 리터러시의 대두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시대에 영화영상 전공자들의 졸업 후 전망은 어떠할까. 감독 혹은 작가를 꿈꾸며 입문한 뒤에 당도하게 되는 산업의 실제 속에는 예상보다 더 다양하고 신선한 직업과 역할들이 존재한다. 전통적 의미의 감독, 배우가 아닌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들을 정리해봤다.

김소미

IP 개발자로서의 작가

웹툰이 영화로, 영화 시나리오가 드라마 극본으로, 웹소설이 웹툰으로 변모해 세계관을 확장하는 요즘. 코믹북-영화-시리즈-그리고 각종 굿즈를 가로지르는 IP 사업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것만이 아니다. 다양한 매체, 장르와의 융복합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IP를 개발한다면 감독, 작가, 기획자, 제작자 등 어떤 직함을 가지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크리에이터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점점 카메라 앞으로 나오며 추세다. 과거처럼 반드시 극장 개봉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도 OTT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 영화, 드라마 혹은 그 경계에 있는 작품의 감독이라 불리는 연출자들의 수도 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재료를 한 90년대생 감독들의 다큐멘터리,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젊은 쇼호스트들의 등장 등도 눈여겨보자.

편집감독, VFX 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영화가 편집의 예술이라는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극장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체험을 강조할 개봉영화 시장에는 컴퓨터그래픽(CG)과 시각효과(VFX)를 강조한 대작들이 포진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영화의 고전적 형식을 허물어버린 채 과감한 스타일을 시도할 것이다. 편집감독, VFX 슈퍼바이저, 그래픽 디자이너, 사운드 슈퍼바이저 등 영화영상의 기술을 만지는 인력은 앞으로 더욱더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 후 시나리오 집필, 연출뿐 아니라 포스트프로덕션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면밀히 시험해보길 바란다.

기획, 투자, 배급, 홍보

창작자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작품을 개발하고 서포트할 인력이 중요해진다. 영화영상 산업은 다종다양한 인력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다. 영화 제작의 초기 단계로는 기획과 투자가 있고, 제작이 완료된 뒤에는 배급과 홍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곳이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그리고 홍보마케팅사다. 영화 제작사는 아이템 수집, 시나리오 개발, 감독 발굴과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므로 평소 트렌드를 읽는 안목이 필요하다. 투자배급사는 영화의 투자, 배급,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회계나 경영 상식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